



언젠가부터 이 노래에 대한 감상을 남기려고 했는데, 얼마 전 느낌이 딱 와서 메모장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휘갈겨 썼다. 그것들을 정리해본다.

나는 딱 두 가수의 앨범을 가지고 있다. 장기하, 그리고 비와이. 장기하보다는 장기하와 얼굴들이 정확하긴 하다.



대학 새내기 때 친구 대학 축제 따라가서 공연 보고 비와이에 완전히 꽂혔다. 그 이후로 쇼미더머니 통해 힙합 몇 년 간 찍먹했는데, 그때 비와이 앨범도 샀다. 이제 난 이 앨범이 나왔던 당시 비와이보다 나이가 많다. 시간 참 빠르다.

비와이의 정규 1집 'The blind star'. 각각의 노래도 좋지만 쪽 들으면 더 좋다. 비와이가 성공에 취해 신실함을 잃고 방황하다가 다시 종교로 귀의하는 이야기를 트랙 순서대로 노래로 풀어내고 있다.

종교 색채가 다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접근하듯 그냥 괜찮게 쓴 소설 한 권 읽는다는 생각으로 귀 심심할 때 앨범 쪽 한 번 들어보기를 권한다. 비와이 랩 스킬 감상하는 재미도 있고 전반적으로 듣기 좋다.

앨범 노래 다 좋긴 하다. 좋다고 느꼈던 곡이 Red Carpet, Bichael Yackson, 9UCCI BANK, Wright Brothers, Dejavu로 사실상 앨범 곡 대부분. 다 좋은데, 오랫동안 꾸준히 찾게 되는 노래는 역시 Where Am I인 듯.

이 곡은 앨범 구성상 타이틀곡 직전에 배치된 곡이다. 비와이가 종교인으로서 갖고 있던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전 혼란스러운 마음을 나타낸 곡이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어릴 적 성당을 다니다가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하며 자연스레 성당과 멀어졌고, 현재 무교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이 곡은 나처럼 종교를 한 번이라도 가져 본 사람이 라면 공감할 법한 회의감과 고민들을 이야기한다.

도입부 음악이 독특하다. 바뀐 도입부인데 사실 바뀌기 전 도입부도 괜찮았다. 이젠 찾기 어려워서 살짝 아쉬운 마음.

잘 모르겠어 내 인생, 난 모르겠어 내일이  
무감각해진 Amen, 살아만 가는 매일이  
당신의 대한 예의에 안 맞는 기분의 죄의식  
알려줘 please, 내게 알려줘 your plan, ay  
당신이 원하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 정말로 안 보이는 건가  
내 안의 영원함은 사라져버렸어  
난 아직도 늘 일시적인 것들 안에 남아있더군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다. 라임이 아무져서 가사 듣는 재미가 있다. '무감각해진 Amen'이라는 가사가 좀 와닿는다.

일상에 녹아든 기도, 꾸준히 참석하는 종교 활동, 종교에서 만들어진 인간관계까지 합쳐지면 종교는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안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떼어내기 애매하고, 일단 평소 하던 일은 계속 유지하는 그 정도. 게임 일일 퀘스트만 하는 사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다 어느 날 하던 일 몇 가지를 멈추거나 그만두게 되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종교를 유지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진다. 애초에 종교로부터 큰 감명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었던 적은 많지 않았다. 그저 어릴 때부터 가까웠던 친구들, 종교 활동에 꾸준히 참석하는 가족, 여러 행사와 맛있는 음식이 긍정적 유인이었을 뿐. 나이를 먹으며 그것들이 하나 둘 멀어졌고, 나는 자연스레 종교로부터 멀어졌다.

현찰로 가득 찬 나의 지갑과  
내 방안에 있는 몇 억 원어치의 잡화  
Chanel, Louis V, Gucci, Balenciaga  
명예와 인기는 다 천국까지 갈까?  
I don't know, 내 발은 이제 어디로?  
잠깐의 반짝임에 눈이 먼 건지도  
이제 보이지 않아, 나의 길  
절대로 이해 할 수가 없어 내 머리론

현찰 가득... 샤넬 루...머시기 이런 건 가져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쇼미 끝나고 저것들 다 가져봤나 궁금하기도 하다. 여하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생각들.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간 아닌가. 현생이 여유로우면 내세의 삶에도 욕심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재물이 많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욕심이 나는 법이다. 비와이는 조금씩 주목받다가 어느 순간 인기가 확 올라 쇼미더머니에서 정점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고점 인기를 맛본 순간과 힘들게 음악 하던 순간이 그리 멀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달라진 환경에 생각과 신념이 따라가지 못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독실한 기독교 래퍼라는 이미지까지 있으니 이미지를 망칠 법한 생각을 꺼내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고요함뿐인걸 거울 속 내가 아무리 외쳐도  
후회는 왜 항상 나보다 한 발자국 느리게 오는지  
Where am I, where am I, oh, 이제 나는 어디로  
Where am I, where am I, oh, 이제 나는 어디로  
Where am I, where am I, oh, 이제 나는 어디로  
Where am I, where am I, I, I

혹에서는 노래 제목을 여러 번 반복한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창 쉼 스크립트 공부할 때 리눅스 명령어에 whoami, which, whereis 같은 게 있어서 혹시 whereami도 있을까 했는데 없더라. 길어서인지 pwd(print working directory)가 대신 쓰인다.

'후회는 왜 항상 나보다 한 발자국 느리게 오는지'라는 가사는 종교고 뭐고 떠나서 진짜 인정이다. 매일매일 인생에 흑역사 하나씩 추가되는 느낌인데 나 왜 이렇게 살지? 성에 안 차는 게으른 삶을 살아서 그런 듯. '생전 고인의 개쩌는 모먼트' 후보감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여하튼 '내가 종교인과 무종교인 사이 어디쯤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은 이따금씩 내게 찾아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다.

삶이 아무 의미 없다면  
이 짓거리는 대체 뭘 의미인 건지  
이 랩이 단지 소리일 뿐이라면  
왜 우린 문장 하나에도 맘을 지새는 건지  
영생이나 사후 세계가 없다면  
지금 내가 산 차는 반영구적인 건데  
신념을 가진 어떤 이는 물질은  
다 허상이고 다 무의미한 거라 하네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만든 통치의 기술?  
과학이 증명한 사실에 맘이 가는 이유가  
보이는 걸 믿는 게 더 쉬워서인 걸까  
기적을 보지 못한 걸까  
그럼에도 난 아직 신을 믿네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이해 할 수 없기에  
생각의 피비우스의 띠를 짊어  
끊어주는 건 소주 몇 잔 그리고 담배.  
당신들을 설득 할 생각 없네  
난 지금 이 지점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뿐  
넌 내게 돌을 던져도 돼 몇 년 전에  
난 예수님과 그걸 믿는 자들의 광신도였거든  
그때의 나를 사랑했다면 지금 날 증오했도 돼요  
난 전세 계약이 끝나가서 다음 이사 갈 집이 더 급해요  
언젠가 내가 미친다면 나를 연민해줘요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존재의 이유를 물었다 기억해줘요  
Where am I

개코의 피쳐링. 비와이의 랩 가사도 좋지만 개코의 랩이 정말 이 노래의 백미다. 따로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 매우 직설적이다. 그냥 가사 전부 그대로 공감했다.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만든 통치의 기술?'부터 화끈하다. 역사나 과학 공부하다 보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생각. 생각보다 주변 둘러보면 공통점 찾기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을 한 데 묶을 수 있는 공통분모 찾기 쉽지 않다. 웹사이트 방문자 순위, 유튜브 조회수 높은 영상 보면 그나마 몇 가지 공통된 욕망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들도 종교만 할까 싶다. 종교가 통치의 기술로서 탄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인간에 의해 통치의 기술로 쓰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한다. 명분 채우는 데 최고 아닌가.

소위 '팩트'라고 하는 학문에도 '절대불변'의 이론은 그리 많지 않다. 애초에 그 팩트를 꼼꼼히 검증해 온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기도 하고. 당연히 연구자분들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엄밀한 학문조차 절대적 믿음을 가질 만하다고 확신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미지'의 베일에 싸여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끝없이 이어지는 '왜'에 완벽히 대답할 수 있는 무언가가 과연 있는가?

학생이면 공부하고, 직장인이면 일하고. 종교에 대한 끝없는 물음도 현실에서 살아가려면 결국 중간에 끝맺음을 해야 한다. 개코가 소주 몇 잔과 담배로 뽀빠스의 띠를 자를 때,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그냥 자자'라는 생각으로 청한 잠이 가위 역할을 했던 것 같다.

'난 전세 계약이 끝나가서 다음 이사 갈 집이 더 급해요'라는 가사. 예나 지금이나 이 말도 참 와닿는다. 애초에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대로,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못 믿고 이해 못하는 바보로서 결코 끝낼 수 없는 생각의 뽀빠스의 띠. 이어지고 끊어지기의 연속이지만 어느 순간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눈 앞의 삶에 치여 잊힌다. 그러나 과거에도 되풀이되었듯, 앞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가 다시 이 생각과 마주칠 것을 알고 있다. 과연 이렇게 미루기만 해도 괜찮을까?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존재의 이유를 물었다 기억해줘요'. 우리는 왜 살까? 세상은 어떻게 탄생했고 나는 어떻게 지성을 갖게 되어 여기 내 주위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을까? 종교로도 과학으로도 탐구할 의의까지는 없는 게으른 인간이지만 이런 생각과 마주치기를 반복하다 보니, 사이비 종교 권유에도 당하던 나는 이제 길거리 전단지 배부, 종교 권유 거절하듯 이 생각을 떨쳐내는 데도 익숙해졌다.

그래도 내가 방황할 때,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 여전히 이 노래의 가사들이 귓가에 맴돌곤 한다.

*I am blind* 그래 맞아  
생각했었지 내가 길을 안다고  
두 손을 모으는 법마저  
잊어버린 것 같아  
*I am blind* 인도한다던 말은 장난이었나  
*What do I live for?* 위치와 영광?  
누가 날 위해 기도해주는 걸까  
*Where am I*

뒤에 이런 가사가 더 있는데, 아직 여기서 무언가 깊게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다.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고 행동하기에 달렸다는 건방진 생각을 몇 번 한 적은 있다. 까불지 좀 말아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면 그때는 이 노래를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다. 과연 그 세계선에 도달할 수 있을지...